

# 서울모형항공기연구회



▲겨울모형항공기학교 입학식장면

과학기술교육의 저변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1986년 5월 초등교사들 중심으로 탄생한 서울모형항공기연구회는 해마다 지도교사 양성을 위한 겨울모형항공기학교를 열고 있으며 가족모형항공기날리기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서울모형항공기연구회는 1986년 4월 초등교사들 중심으로 발기가 되어 1986년 5월에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발족하였다. 회원 1백2명으로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초대회장으로 김영수(당시 서울원춘국민학교 교장)가 선임되어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창립목적은 83년 정부의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 발표에 따라 각종 과학행사를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그 행사 속에는 모형항공기분야도 포함되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모형항공기 제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각급 학교에서는 지도할 교사가 없어 연구회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연구회가 설립된 것이다.

## 해마다 겨울모형항공기학교 개설

본회의 목적은 모형항공기의 개발이나 기능신장에 둔 것이 아니라 모형항공기의 저변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모형항공기비행대회에서 모두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교사 양성이 급선무이므로 모형항공기 제작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회에서는 지난 87년 모형항공기 학교를 개설하기 위해 모형비행기 제작에 따른 이론과 실체를 겸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겨울모형항공기학교란 명칭은 겨울방학에 강습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이 겨울모형항공기학교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첫째날은 비행기의 이론에 대한 강의와 글라이더 제작시간으로 꾸며진다.

모형항공기는 종합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객기는 조종사가 조종을 해서 날아가지만 모형항공기는 공중에 띄워 놓으면 저 혼자서 저항없이 잘 날아가도록 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중심(균형), 무게, 저항, 양력장치 등이 잘 고려되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모형항공기는 절대로 날지 않는다. 비행기제작도 제작이지만 운동장에서 날릴 때의 기류상황을 잘 볼 줄 아는 경험이 필요하다.

모형항공기의 가장 기초가 글라이더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입된다. 글라이더를 잘 만들 줄 알면 고무동력기는 쉽기 때문이다. 글라이더 제작이 완료되면 예방법을 훈련하게 된다. 고무동력기는 말 그대로 동력으로 비행기가 날아가지만 글라이더는 예방줄을 이용해 비행기를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초보자는 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령과 방법에 대한 정확한 학습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가족모형항공기날리기대회의 개최식 장면



▲가족모형항공기날리기대회에서 어린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모형항공기를 날려보고 있다.

### 1g이라도 가볍게 제작 경쟁

이 과정이 끝나면 고무동력기를 제작하게 되는데 고무동력기 역시 글라이더 제작과 비슷하다. 고무줄과 프로펠러를 장착시켜야 하고 바퀴까지 달아야 하기 때문에 글라이더에 비해 상당히 무게가 무거워진다.

1g이라도 가볍게 제작하는 것이 기술이고 방법이다. 고무동력을 완성하면 역시 글라이더와 같이 비행기를 날려야 한다. 그런데 고무동력기는 예항줄로 날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동체에 붙은 고무줄을 감아서 날리면 된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셋째 날은 항공대학과 유대를 맺어 항공대학을 견학하는 날로 정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통근버스를 빌려서 항공대학 견학이 있다.

항공대학 견학에서는 교수들의 특강이 있게 되는데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항공기에 관해 쉽고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을 영화나 슬라이드를 통해서 진행된다. 특강이 있는 후에는 항공대학 학생들이 비행연습을 하는 실물비행기를 어린이들이 직접 탑승을 한다.

겨울모형항공기학교는 교사반, 성인반, 학생반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으로 구분하여 그 수준에 맞게 지도를 한다. 각 반에는

지도교사가 직접 이론을 설명하고 난 다음 제작활동으로 들어간다. 지도 및 활동과정에서는 초급반이 시간이 많이 걸리나 중급반 이상은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비행기를 만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비행기를 개조하면서 성능이 우수한 비행기를 만드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겨울모형항공기학교에 처음 입교했던 회원들은 매년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 겨울모형항공기학교의 자랑이다.

### 10월에 가족모형항공기날리기대회

다음은 본 연구회의 주요사업인 가족모형항공기날리기대회이다. 가족모형항공기대회는 팀 단위로 경기가 펼쳐지는데 반드시 부모이거나 형제자매가 3인1조로 구성이 되고 세 사람중 한 사람은 글라이더를 날려야 한다. 즉 두 사람은 고무동력기를 날리고 한 사람은 글라이더를 날려야 한다. 세 사람이 모두 두 번씩 날려서 최고 기록인 세 사람 것을 모두 합산하여 그 기록으로 등위를 결정한다.

시상은 최고상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상을 탈 수 있도록 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회는 해마다 1백팀(3백명) 이상이 참가하게 되는데 적어도 30팀에게는 트로피와 푸짐한 상품

을 주어 격려를 하고 있다.

겨울모형항공기학교나 가족모형항공기날리기대회가 각각 7회째를 맞으면서 서울모형항공기연구회는 날로 발전을 하고 있다. 잠원고수부지를 빌어 제 1회 가족모형항공기대회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가족모형항공기대회를 잠원고수부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특히 올해는 광복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어서 가족모형항공기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본 연구회는 일반인과 학부모로 조직된 후원회의 지원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회비를 일체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가족모형항공기날리기대회는 처음에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개최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토요일 오후에 개최하고 있다. 또 아이들의 성화에 못이겨 직장생활에 바쁜 아버지들이 대회장에 한번 참가해 보고는 동심으로 돌아가 너무도 즐겁다고 하면서 매년 참가하는 아버지가 늘어나고 있어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이 대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로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는 전국을 확산하는 연구회와 대회를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 (S)